올 여름 힘겨운 쪽방촌, 풍성한 한가위 기원

9월 1일 떡과 과일 등 자비나눔

코로나 상황에 배식 대신 선물
한가위 온정 느끼는 물품 담아
스님들 직접 나누며 덕담 건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월 1일 쪽방도우미봉사회원들이 소분한 떡과 과일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영등포쪽방촌은 서울역과 남대문, 대문, 돈의동 등과 함께 서울시내 5대 쪽방 밀집지역으로 쪽방촌 중 가장 거주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600여 주민이 사는 이곳에는 70% 가량이 기초 수급자 등 어려운 소외계층이다.

9월 1일 영등포역 철도길 옆 쪽방촌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은 불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봉사회장 김윤석)가 제30회 추석맞이 자비나눔을 진행한 날이었다.

"추석 맞아서 떡과 과일 등을 받으려고요." 줄 가운데서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던 이들이 말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난으로 세밑 온정까지 식어가는 상황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장이었다.

길게 늘어선 주민들을 위해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미리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자비나눔에는 하동 상선암 보성 스님과 청각장애인불자모임 자비두손회 회장 일원 스님이 함께 했다. 직접 스님들로부터 덕담과 함께 물품을 건네받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다.

보성 스님은 "어디가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아직도 굶주린 이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원 스님도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스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김윤석 경감을 비롯한 많은 불자들이 앞장서고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과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물품을 건네받은 김 OO씨는 "보통 갈 곳이 없어 명절이 되어도 인근주민들끼리 보낸다. 떡과 과일 등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주민들끼리라도 나눠먹으며 명절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윤석 봉사회장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한가위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오늘 전달된 물품이 약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김윤석 봉사회장이 2001년 박부득 봉사팀장과 함께 조계사 붓다맘봉사회를 비롯한 불자 봉사자들을 모아 영등포 쪽방촌을 돕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보통 목요일이면 국수를 마련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린다.

김윤석 봉사회장은 상암소년촌 고아원에서부터 자비나눔을 시작해 이날까지 30년간 나눔을 이끌어 왔다. 김 봉사회장은 "앞으로도 힘을 다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앞으로 온정을 전하는 일에 더욱 발 벗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쪽방도우미봉사회 무료급식소에 대한 철거 강제이행금이 3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쪽방도우미봉사회의 활동 터전인 영등포동 618-584의 무료급식소는 가건물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2017년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상태다. 십시일반 노력봉사로 쪽방촌 소외계층을 돕는 이들에게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美뉴욕, 템플스테이·사찰음식에 빠지다

문화사업단, 8월 25~29일 '한국 전통불교와의 만남'

현지 관광업계·대학생 대상
뉴욕 원각사서 템플스테이
링컨센터서 한국불교 체험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5회 한국전통불교문화의 만남' 행사에서 한국불교만의 발우공양을 현지인들이 체험하고 있다.

미국의 심장부 뉴욕이 한국불교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매료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 일원에서 '제5회 한국전통불교문화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후 첫 대규모 해외 홍보행사여서 의미를 더했다.

8월 25일에는 뉴욕 원각사에서 워커힐, 엔조이 트레블 등 현지 대표 여행·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일형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 전통 건축으로 불사 중인 원각사에서 발우공양, 참선 체험 등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 이후 많은 업체와 학교에서 단체 여행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방문 계획을 서두르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8월 28일에는 쿠퍼유니온, 콜럼비아대, 예일대, 하버드대, 뉴욕주립대 등 동부 지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가 뉴욕 원각사에서 진행됐다.

미국 대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실제 뉴욕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과의 차담 시간에는 학생들의 불교수행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에 지광 스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동남아시아 불교의 수행방법과 한국불교의 화두선을 비교해 이해를 높였다.

8월 27일에서 28일까지 뉴욕 링컨센터 아트리움에서 열린 메인 행사에서는 한국불교 사진전, 템플스테이 홍보·체험 활동, 여름 사찰음식 시식 프로그램,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발우공양 워크숍 등 한국 전통불교문화 이벤트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을 통해 마감됐을 정도로 한국불교문화 체험에 대한 현지 인기도 높았다.

미 동부지회 사찰(원각사·불광선원·보리사·원적사) 신도들과 함께한 체험활동은 지화연꽃만들기, 염주 만들기, 전통부채 채색체험, 반야심경 인경 등으로 구성돼 현지인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사찰음식 붐을 일으킨 명장 정관 스님은 두부장 채소 겉절이를 직접 시연하고, 발우공양 워크숍을 통해 자연과 환경에 대한 불교적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웠다.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찰음식 전문가 지견 스님은 계절 채소를 이용한 오이채소말이, 가지구이 등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한 사찰음식 레시피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하지권 불교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지승원 7곳,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사진작품 50여 점이 전시돼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전시된 사진들은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동부지부로 기증돼 현지 한국불교 홍보와 포교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신성민 기자

대학전법센터 발원 600일 기념법회 눈길



대불련총동문회와 동불 등은 8월 2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전법센터 건립 발원 600일 기념법회를 열었다.

8월 20일 동국대 정각원서 봉행

2020년 12월 발원한 대학전법센터 건립을 위한 법회가 열렸다. 대불련총동문회(회장 변대용)와 사단법인 대불, 동불 등은 8월 2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전법센터 건립 발원 600일 모심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 불교동아리 동불 동문들과 대불련 선후배 50여 명이 모여 센터 건립을 서원했다.

사기순 동불 동문회장은 "후배불자들을 위한 전법센터 건립을 발원한지 600일"이라며 "각계의 도움으로 센터 건립이 한발 한발 이뤄지고 있다. 대학전법센터는 청년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선불장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제34회 포교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9월 30일까지 포교원 포교팀 접수

조계종 포교원이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을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과 공로상, 원력상 후보자를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추천분야는 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인 등 계층포교를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 경찰, 직장직능 등 직능포교분야를 포함한다. 또 미술, 성보,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문화체육포교와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다문화 등 사회포교와 방송, 신문, 잡지, 출판 등 대중매체포교 및 신도교육 및 조직 운영 등 지역포교분야에서 헌신한 출재가자 및 사찰, 단체 등이다.

대상 후보자는 공적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로상 원력상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또는 종단 소속 포교단체의 대표자나 종단 등록 신도단체의 대표자 추천서를 포함해 후보자 공적서와 이력서 등 서류를 포교원 포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시상식은 11월에 개최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3기 불교크리에이터에 혜장 스님 등 선정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최근 전문가 및 교무위원 심사를 거쳐 제3기 불교크리에이터 4명을 선발했다.

불교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선발된 혜장 스님(메타몽크)은 '메타몽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한 불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우수상 선정자인 권미희(팔방미희의 산사버스킹) 크리에이터는 찬불가 및 불교문화를 유튜브 영상 콘텐츠 통해 소개하고 있다.

우수상 선정자인 이현희(부다캣) 크리에이터는 부처님과 고양이를 접목시킨 부다캣 캐릭터를 인스타툰 형식으로 SNS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게시하고 있으며 박혜인(절로가는 해인이) 크리에이터는 전국 전통 사찰과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불교 문화를 알리고 있다.

포교원은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획서에 초점을 맞춰 심사했다. 웹툰, 유튜브 영상 등 도전적이고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기획을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